

## 后山 鄭胤永의 척화의 신념과 현실 인식

- 유배시기 시작품을 중심으로 -

박 중 훈\*

###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정윤영의 생애와 유배시기 시작품 일람
3. 현실인식과 신념이 반영된 다채로운 시세계
  - 3.1. 현실인식 - 불굴의 신념
  - 3.2. 인문지리에 대한 관심
  - 3.3. 산수 유람의 흥취와 문학적 승화
4. 나가는 말

#### | 국문초록 |

鄭胤永(1833~1898)은 신사년(1881, 고종 18) 전국에서 척사운동이 전개되자, 2차례 올린 소장의 배후 인물로 지목되어 1881년 9월 함경도 靑原으로 유배되어 1883년 봄에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바 있다. 이 시기 지은 작품은 그의 문집인 『后山集』 권1 앞부분과 권2에 순차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賦 4편, 詞 3편을 포함하여 총 93題 115首를 지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토대로, 유배시기 작품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우선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과 불굴의 신념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을 통해, 유배에 대한 천명의식 나아가 척화 및 척사에 대한 정당성을 드러냈다. 또한 국난을 극복했던 이성계와 임진왜란에 대한 기억을 소환했는데, 이 역시 난국의 타가에 대한 신념이 반영된 것이었다.

북관의 인문지리에도 많은 관심을 쏟았다. 북관의 史蹟이나 당대 풍습 및 백성들의 생활상을 詩화했다. 유배객이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은 척화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학적 성취와 승화가 담긴 작품을 살펴보았다. 정윤영은 유배객의 처지였지만, 실제 작품을 보면 마치 한 편의 遊覽記를 보는 듯하다. 절경을 대하는 순간의 흥취가 물씬 묻어나고 직면한 풍경을 묘사하면서도 그 속에 당대 현실과 타가에 대한 열망을 우회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王維의 작품을 모티브로 해

\* 조선대학교

지은 매화 관련 작품에서는 그의 문학적 성취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유배객의 문학적 성취와 승화는 보통의 유배객과는 다른 접근이다. 이러한 묘사가 가능했던 것 역시 척화 및 척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핵심어** : 辛巳斥邪, 斥和萬人疏, 后山, 鄭胤永, 后山集, 유배시기 작품.

## 1. 들어가는 말

1880년 5월 일본에 수신사로 갔던 金弘集이 일본 주재 청국공사관 참찬관인 黃遵憲이 지은 『朝鮮策略』을 가지고 와 고종에게 바쳤다. 이 책은 조선의 외교 정책에 대해 서술한 것으로, 조선의 자강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중국과 친교를 맺고[親中國] 일본과 외교를 굳건히 하며[結日本] 미국과 연대해야 한다[聯美國]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천주교와 예수교는 근원은 같고 당파만 다르다고 하면서 이를 유학의 朱子와 陸象山에 비견했다. 그러니 조선에서 예수교의 교리를 받아들여도 周孔의 道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목은 철저하게 주자학을 신봉했던 조선의 주자학자들에게 반기의 동인이 되었다. 더욱이 조선 정부에서는 개화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 하여 복사해 전국에 배포했으며,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1880년 늦가을부터 1881년 여름까지 전국에서 위정척사운동이 일어났고 각 지역에서 연이어 소장이 올라왔다.<sup>1)</sup>

1880년 10월에 劉元植과 許元式 및 李駿善 등 전현직 대관들이 반대하는 소장을 올렸으며, 1881년 2월 영남의 유생들이 상경하여 18일 李晚孫을 疏首로 <嶺南萬人疏>를 올렸다. 이를 시발점으로 5월에 경상도는 金淳鎭, 경기는 柳冀永, 충청도는 韓洪烈, 閏7월에는 경기도 申櫟, 강원도 洪在鶴, 충청도 趙啓夏, 전라도 高定桂 등이 개화를 반대하는 소장을 연이어 올렸다.<sup>2)</sup>

1) ‘斥邪’는 서양을 배척한다는 의미이고, ‘斥和’는 일본과의 강화를 배척한다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 서양 문물의 유입이 일본을 통해 들어왔기에 척화 속에 척사가, 척사 속에 척화가 내재되어 있다. 이는 정윤영의 『후산집』 권5 <第二疏>에도 보인다.

이 때 鄭胤永은 경기도에서 올린 소장을 작성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정운영은 1881년 4월과 6월에 각각 소장을 지었다. 첫 번째 소장은 4월에 경기도 疏首인 유기영을 대신해서 짓고 5월에 올렸으며, 임금의 曉諭가 있자 궁문에서 물러났다.<sup>3)</sup> 두 번째 소장은 6월에 지었는데, 疏首인 신섭을 위해 대신 짓고 7월에 올렸으며, 임금이 보신 뒤에 신섭을 금갑도로 귀양 보낸 바 있다.<sup>4)</sup>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정운영은 경기도에서 올린 척화 소장의 배후로 지목되어 체포되었고 함경도 利原縣으로 유배를 간 바 있다. 1881년 9월에 귀양을 가 1883년 2월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때 적지 않은 시작품을 남겼고 그의 문집인 『后山集』 권2에 순차적으로 실려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당시 척화운동의 핵심 인물의 유배시기 의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척화를 주장했던 인물들의 대체적인 시적 경향은 동일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유배라는 특수한 상황을 직면하면서 평소 자신의 신념에 대한 회의 및 이상실현에 대한 좌절감에 젖어 적지 않은 내적갈등을 겪기 마련이다. 이를 통해 작가의 내면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에 유용한 작업으로 보인다. 다만 유배시기 작품을 일람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작품의 일면을 소개하는데 머문 것은 본 논문의 한계임을 미리 밝힌다.

## 2. 정운영의 생애와 유배시기 시작품 일람

鄭胤永(1833~1898)의 본관은 草溪이고 字는 君祚이며 號는 石華·后山이다.

2) 신사척사운동과 관련된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했다. 김시태, 「黃遵憲 朝鮮策略이 韓末政局에 끼친 영향」, 『사충』 8권,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63; 송병기, 「辛巳斥邪運動 연구」, 『사학연구』 37, 한국사학회, 1983; 문소정, 「衛正斥邪運動에 관한 知識社會學的 研究(下)」, 『한국학보』 10권 4호, 일지사(한국학보), 1984; 오영섭, 『화서학파의 사상과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1999; 권오영, 「1881년의 경기척사론」,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오영섭·김자운 공저, 『구국救國의 마지막 제언-후산 정운영의 학문과 실천』, 화성사·화성문화원, 2010.

3) 이때의 소장은 권5 <斥和萬人疏>이다.

4) 이때의 소장은 권5 <第二疏>이다.

5) 이 소장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권오영의 앞 논문 및 오영섭·김자운 공저(앞의 책) 참조할 것.

아버지는 鄭鉉豐이고 어머니는 晉州姜氏 姜時冕의 딸이다. 1833년(순조 33) 12월 15일에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금곡리에서 출생했으며, 伯父인 鄭鉉澤에게 입양되었다. 1845년(헌종 11) 13세 되던 해에, 水原留守가 개설한 화성군 백일장에 응시하여 1등을 했고 16세인 1848년(헌종 14)에 宜寧南氏 南鍾正의 딸과 결혼했다.

1869년(고종 6) 37세이던 가을, 公州 明剛山에 있는 任憲晦에게 나아가 제자가 되었다. 임헌회는 李珥의 호인 石潭과 宋時烈的 華陽에 착안하여 ‘石華’라는 齋號를 내려주었다. 임헌회는 이이와 송시열의 학통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석화’라는 호 역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내린 것이다. 임헌회의 문인이었던 田愚 및 李恒老 學派인 金平默·柳重教 등의 교유 역시 정운영의 사상과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1871년(고종 9) 40세이던 봄, 안성군 后山으로 이사하여 과거를 포기하고 부모봉양과 독서로 일관했으며, 이때부터 김평묵·유증교와 교제를 시작했다. 1875년(고종 12)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후산에 장사지내고 이때부터 ‘후산’이라는 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1876년(고종 13) 1월, 일본이 강화도를 침범하자 스승 임헌회에게 편지를 보내 직접 소장을 올려 斥和를 주장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1881년(고종 18) 개화를 반대하는 유생들의 辛巳斥邪運動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경기도에서는 같은 해 4월 柳冀永을 疏首로, 6월에는 申櫟을 소수로 두 차례 소장을 올렸다. 이 두 소장은 정운영의 『후산집』 권5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실제 소장을 작성하는데 정운영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결국 6월 올린 소장의 소수인 신섭은 급감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그 해 8월 21일 정운영은 배후인물로 지목되어 체포되었고 함경도 利原縣으로 배소가 결정되었으며 9월 초에 귀양길에 올라, 多寶社 申浦里 崔著憲의 집에 머물며 귀양살이를 했다.

1881년 10월 15일에 <十月望日有懷赤壁>이란 작품을 지은 것으로 보아, 10월 초에 정배지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원에 있는 赤壁, 學士臺, 卯島와 黃州의 月波樓 등을 유람했다. 다음해인 1882년 정월 보름 이후에 바닷가를 따라 이원의 북쪽으로 雙石臺(利原), 遮湖(利原), 多寶洞(利原), 定光寺(利原), 香林寺(利原), 福興寺(利原), 摩雲嶺, 端川, 摩天嶺, 城鎮, 七寶山(明川), 端川을 유람

하고 4월 중순 경에 이원으로 돌아왔다.<sup>6)</sup> 이때부터 해배될 때까지는 이원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유배객의 심사를 토로한 작품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어졌다.

1882년(고종 19) 6월 12일에 정운영을 즉시 풀어 주라고 道臣에게 명을 내렸지만 다음해인 1883년(고종 20) 1월에야 석방되어 2월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 1893년(고종 30) 7월 22일에 義禁府都事에 임명되었지만 나가지 않았고 같은 해 8월 17일에 성균관 直講에 임명되었지만 또한 나가지 않았다. 1894년(고종 31) 7월 16일 司諫院司諫에 제수되었지만 곧바로 교체되었다. 1895년(고종 31) 11월에 단발령이 내려지자 <自靖銘>(권11)을 지은 바 있다. 1898년(광무 2) 5월 11일 향년 66세로 별세했다. 저서로는 『后山集』·『爲邦輯略』·『華東年表』·『北征雜詠』이 있다.<sup>7)</sup>

1881년 9월 초에 유배길에 올라 돌아온 1883년 봄까지의 작품이 『후산집』 권 2에 순차적으로 실려 있다. 오언절구 33수, 오언율시 10수, 칠언절구 29수, 칠언율시 27수, 오언고시 1수, 칠언고시 3수 총 86題 103수가 실려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지은 작품으로 『후산집』 권1 賦에 <白沙李先生賦【辛巳 ○北靑府東數里, 有老德祠, 享白沙李先生.】>·<過臨溟賦【并序○壬午】>·<謹次朱子白鹿洞賦韻 爲之賦紫陽里【并序】>·<海賦> 4편이 실려 있고 『후산집』 권1 詞에도 <利城雪夜共朱乃雲【日龍】謹次朱子梅詞 二闕【辛巳】>·<謹次朱子西江月詞 二闕>·<謹次朱子雪梅詞 四闕> 3편이 실려 있다. 『후산집』 권1에 실린 작품은 총 7題 12首이다. 이로 본다면, 정운영이 유배시기에 지은 시작품은 총 93題 115수가 된다.

6) 유람을 시작하면서 지은 작품은 <遊雙石臺>이다. 이 바로 앞 작품은 <正月望日踏橋, 景三率妓樂而來>이니 1882년 1월 15일 이후에 유람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유람의 마지막 작품은 단천의 북쪽 10리에 있는 將士臺에 올라 지은 <登將士臺>라는 작품이다. 이후 全秉玉이 열흘 간 함께 머물다 떠났으며(<送全聲振【秉玉】還鄉【聲振千里來訪留旬日而返】>), 바로 그 다음 작품이 <端午>이기에 4월 중순 경에는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7) 정운영의 대략적인 생애에 대해서는 오영삼·김자운 공저(약의 책)와 『高宗實錄』 및 『后山集』 권15 <年譜>를 참고했다. 정운영의 『后山集』·『爲邦輯略』·『華東年表』·『北征雜詠』은 모두 화성시 향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3. 현실인식과 신념이 반영된 다채로운 시세계

#### 3.1. 현실인식 - 불굴의 신념

외부의 자극은 전통 성리학자들의 반감을 일으켜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상소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올린 이들에게는 형벌과 유배 형이 결정되었지만, 그들의 현실인식에는 변함이 없었고 자신들의 신념도 전혀 굽히지 않았다.

...(前略)...

世駭駭其叔季	세상이 점점 말세로 달려가더니
奄二氣之淆混	음과 양이 뒤섞여 버렸네.
草萬言而衛正	만언으로 소장을 엮어 正道를 보호하려다가
乃余謫而非遯	이에 귀양 왔으니 도망 온 것이 아니네.
苟余信其非辜	참으로 나는 죄가 없음을 확신하는데
天愈高而莫問	하늘은 더욱 높아 물을 수가 없어라.
關雲翳而掩涕	변방은 짙은 구름 깔려 눈물만 흐르고
策余馬而不進	내 말을 채찍질해도 나아가지 않네.
歎賈生之鵬止	賈誼에게 복조가 날아든 것을 탄식하며
遲陶翁之鳥倦	陶潛처럼 歸去來함도 이미 늦었구나. <sup>8)</sup>

...(後略)...

함경도 이원에서 사십 리 떨어져 있는 紫陽里에 봉안되어 있는 朱熹의 영정을 보고 읊은 賦작품 중 일부이다. 세상이 말세로 치달아 음양이 뒤섞여 버렸다는 것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성리학적 세계관이 왜앙의 영향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다는 표현이다.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장을 올렸고 그로 인해 유배를 오게 되었지만, 결코 잘못된 신념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눈물만 흐르고

8) 정운영, 《후산집》 권1 <謹次朱子白鹿洞賦韻, 爲之賦紫陽里.>(이하 정운영의 《후산집》의 작품을 인용할 경우, 권수와 작품명만을 밝힌다.)

말도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위기의 상황을 뒤로 하고 유배를 간 아픔을 표현한 것으로, 愛國에 대한 절박한 심사를 묘사한 것이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賈誼와 陶潛을 가져와 자신의 심사를 대변했다. 가의는 바른말을 자주한 탓에 漢 文帝에게 미움을 사 長沙王太傅로 좌천된 바 있다. 이 때 凶鳥인 鵬鳥가 집으로 날아들자 자신의 목숨이 길지 않음을 직감하고 <鵬鳥賦>를 지어 자신을 달랬다. 정운영이 가의의 <복조부>를 이용한 것은 수많은 변화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한결같이 道와 더불어 유유자적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일환이다.<sup>9)</sup> 도잠은 <歸去來辭>에서 “새도 날다 지치면 돌아올 줄 아네.[鳥倦飛而知還]”라 했으니, 자신이 귀향한 것이 늦었다는 표현이다. 정운영에게 <귀거래사>는 단순히 전원에서의 은거라는 의미보다는, 음양이 뒤섞인 세상에서 자신의 도를 펼치는 것이 쉽지 않은 않으니, 물러나서라도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다짐의 다름 아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 상황에서 자신의 처신을 가의나 도잠에 견주어 표현한 구절이다.

治亂無今昔	예나 지금이나 治亂은 있었고
升降有耦奇	오르고 내림에도 耦奇가 있다네.
洪水兼猛獸	홍수와 맹수에 대해서는
三代已聞知	삼대 시절에도 있었음 알고 있다네. <sup>10)</sup>

治亂은 고금에도 있었고 운수의 오르내림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삼대 시절에도 홍수와 맹수<sup>11)</sup>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비록 당대 혼란한 현실을 인지하면서도 다시 平治의 세상이 되기를 담담하게 읊조렸지만, 홍수와 맹수 속에서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孟子』 <滕文公上>에 보이는 “獸蹄鳥跡之道，交於中國.”이란 표현으로 당대 상황을 우회적으

9) 賈誼, <鵬鳥賦> “.....大人不曲兮, 億變齊同. 愚士繫俗兮, 窘若囚拘. 至人遺物兮, 獨與道俱. 衆人惑感兮, 好惡積意. 真人恬漠兮, 獨與道息.....”

10) 권2 <朱子戲以夏雲多奇峯爲韻賦五絕, 謹次之>

11) 삼대 시절의 홍수와 맹수는 『孟子』 <滕文公上>에 보인다. “當堯之時, 天下猶未平, 洪水橫流, 汎濫於天下. 草木暢茂, 禽獸繁殖, 五穀不登, 禽獸傷人, 獸蹄鳥跡之道, 交於中國, 堯獨憂之, 舉舜而敷治焉.”

로 표현했는데, 『후산집』에 산견된다.<sup>12)</sup>

猶堪夕死可朝聞	아침에 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으니
將此身心辦力分	이 몸과 마음이 힘써 그러려고 힘을 쏟았지.
憶昨龍蛇無限恨	지난 龍蛇의 일 생각에 끝없이 한스러운데
如今鳥獸忍成群	지금도 짐승들이 무리를 이루었구나.
緣何脚血行千里	무슨 이유로 발에 피 흘리며 천리를 가나
爲是肝膽吐萬言	마음속의 울분 만언으로 토해냈기 때문이네.
日下長安渾不見	태양 아래 장안은 온통 보이지 않노니
天公那惜掃浮雲	조물주는 어이해 뜬 구름 쓸어버리지 않으시나. <sup>13)</sup>

유배길에 접어든 초기에 지은 작품이다. 1구에서는 『논어』 <里仁>에 보이는 “朝聞道，夕死可矣.”라는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 자신의 도, 즉 성리학적 세계관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념을 드러냈다. 3구의 ‘龍蛇’는 後漢의 鄭玄과 관련된 고사로 『後漢書』 <鄭玄列傳>에 보인다.<sup>14)</sup> 그러나 여기에서는 壬辰年(1592)과 癸巳年(1593)으로 왜란을 말한다. 짐승들로 유린되었던 왜란의 기억을 가져와 당대 일본의 개항 요구의 상황을 임진왜란에 비견했고 일본을 짐승으로 표현하면서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5구에도 고사가 담겨 있다. 宋의 蔡元定이 僞學으로 몰려 道州로 귀양 갈 때 2천 리를 가자 발에서 피가 났는데(脚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은 고사를 가져와<sup>15)</sup> 당대 현실에 대한 울분을 토해낸 소장으로 인해 유배를 가게 되었지만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7구의 ‘장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혼란한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

12) 권1 <謹次朱子白鹿洞賦韻，爲之賦紫陽里。> “蹄跡交國子心憂兮”; 권2 <己卯志感> “噫吁戲看今域中，白晝啾啾交蹄跡”; 권2 <偶題> “海內腥羶今許久，國中蹄跡又成群.”; 권2 <次靖節先生責子詩，遠寄家兒。> “攘斥恨無術，攘斥恨無術.”; 권2 <南松壇留別崔敬三> “交中蹄跡何須說”

13) 권2 <酬嚴耕湖【錫駿】>

14) 鄭玄이 만년에 병으로 벼슬에서 물러났는데, 하루는 孔子가 꿈에 나타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올해는 용의 해이고 내년은 뱀의 해이다.”라고 했다. 정현은 꿈에서 깨어나 讖言으로 맞추어 보고는 자신의 천명이 다했음을 알았으며, 그해에 죽었다고 한다. 그 뒤 ‘용사’에 해당하는 辰年과 巳年은 賢人에게 불행이 닥치는 흉년으로 일컬어졌다.

15) 『宋史』 <蔡元定傳>에 보인다.

고 8구의 ‘ 뜬구름[浮雲]’은 성리학적 세계관에 반하는 개화의 세력 및 논리로 그러한 뜬구름이 일소되기를 바랐다.

임진왜란의 기억, 유배길에서도 자신의 신념에 대해 오롯한 태도를 보였던 채원정 등을 가져와 어지러운 당대 현실과 그 현실에 대한 자신의 대응 자세 및 불굴의 신념을 지속적으로 설파했다. 이는 유배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적극적인 부지의 자세로, 유배 전시기 작품에서도 산견된다. 沈雲韶와 헤어지며 지은 작품에서는 박학다식한 그대가 소장을 올려 오랑캐를 쫓아내라고 부탁했는데,<sup>16)</sup> 왜양을 오랑캐라고 직접 묘사하여 척화에 대한 강한 신념을 그대로 드러냈고 척화에 대한 자신은 신념은 아홉 번 죽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sup>17)</sup>

현실 인식과 亂國狀의 치유를 과거 기억의 소환을 통해 현실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가 지속되었다. 壬辰倭亂의 기억과 太祖 李成桂를 소환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噫噫西瀾之滔天兮	아, 서방의 파도가 하늘을 삼킴이여
載汎濫于大板	대판에 넘쳐흐르는구나.
【日本都城】	【대판은 일본의 도성이다.】
內實洋而外倭兮	안은 실제 서양이면서 밖은 왜놈이니
闢我疆以設館	우리 영토를 넘보아 관을 설치하였네.
【德源之元山仁川之濟物】	【덕원의 원산과 인천의 제물포에 설치하였다.】
馴致巢窟於亭倉兮	천연정과 평창에 소굴을 이루게 되니
【館待於西門外天然亭又移於造紙署之平倉里】	【관은 서문 밖 천연정에 설치하였
	다가 다시 조지서가 있는 평창리로 옮겼다.】
步白日之康莊	대낮의 사거리에 활보하네.
禮義淪爲糞土兮	예의가 사라져 더러운 땅이 되었으니
將我赤子以幻腸	장차 우리 후손들에게 큰 걱정 끼치네.
慨廟筭之張皇兮	조정의 계책이 핵심이 없음을 개탄하는데

16) 권2 <楊州別沈舜九【雲韶○舜九送余至楊州騎鶴店】> “同來騎鶴州，惜別暮鴻秋。惟碩齊誠力，抗章逐狡酋。”

17) 권1 <海賦> “觸世塗之險巖兮，淹二載於東海。招海若以信誓兮，朕九死猶靡……”

踵和議而臆決	화의를 좇아 제멋대로 결정하네.
憶昔平酋之賺我兮	옛날 풍신수길이가 우리를 속일 때 돌이켜보는데
淚龍蛇之覆轍	임진왜란의 난리를 반복하니 눈물 흐르네.
勗靖難而盡瘁兮	난리를 바로잡아 수고로움을 다하였으니
微先生其被髮	선생이 아니면 아마도 오랑캐가 되었으리.
恭惟英靈之在天兮	삼가 바라건대, 영령이 하늘에 계신다면
祐我冠裳而氛廓掃	우리 민족 도와 더러운 기운 쓸어버리소서. <sup>18)</sup>

白沙 李恒福이 제향 되어 있는 北靑의 老德祠에서 지은 賦작품의 일부로, 당대 현실과 그에 대한 정윤영의 인식이 가감 없이 드러나 있다. 서양의 세력이 일본을 잠식했고 그러한 일본이 다시 조선을 넘보기 위해 원산항과 제물포항에 객관을 설치하여 禮義나라가 비린내 나는 소굴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어 화의만을 좇는 조정의 계책을 질타하면서 풍신수길로 인해 발생했던 임진왜란을 반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때 이항복이 온 힘을 쏟아 난리를 바로잡았으니, 혼령이 있다면 지금의 난국도 바로잡아주길 소망한 것이다.

1882년 吉州를 지나며 임진왜란 때 전쟁터였던 白塔에서 지은 작품에서도 일본 사신 하나부사가 조선을 업신여기는 ‘대일본’, ‘대황제’라는 표현이 임진왜란 때 풍신수길이가 남긴 교활함을 그대로 이은 것이고 서쪽 귀신을 끼고 인도하면서 장차 도마뱀의 이빨을 드러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sup>19)</sup> 이처럼 일본에 속아 난리 통이었던 임진왜란의 기억을 소환하여 그때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서, 임진왜란을 극복한 것처럼 혼란한 당대 현실도 척화를 통해 극복해 나가길 염원했다.

이성계의 史蹟과 관련된 지역에서 감흥을 읊은 작품이 산견되는데 이 역시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된다.

龍去在天江自流	용은 하늘로 떠났고 강물 질로 흐르는데
---------	-----------------------

18) 권1 < 白白沙李恒福先生賦【辛巳 ○北靑府東數里，有老德祠，享白沙李先生。】>

19) 권1 < 過臨溟賦【并序○壬午】> “.....花房售以媿辭兮【倭使花房義質書契中大日本大皇帝之類】，蘊秀吉之餘黠。挾西鬼以徇導兮，將以逞夫啞蟹.....”

龍興江號閔千秋                    용흥강이란 이름으로 천추 세월 살펴보네.  
射臺舊地腥羶滿                    사대의 옛 땅에는 비린내가 가득하니  
欲挽斯江洗盡羞                    이 강물 끌어다가 치욕을 말끔히 씻고자.

【射臺在元山浦，太祖所嘗射處。】【射臺는 元山浦에 있는데, 태조 이성계가 예전에 활을 쏘았던 곳이다.】<sup>20)</sup>

이성계가 흥기 했던 함경도 永興에 있는 龍興江에게 지은 작품이다. 이성계가 활을 쏘던 사대에 왜양의 비린내가 진동하니, 이성계의 흥업이 시작된 용흥강물을 가져다가 말끔히 씻어내고자 하는 소망을 담았다. 비린내 나는 현실을 이성계의 소환을 통해 타개하고자 한 것인데, 이성계의 사적과 관련된 작품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된다. 元山浦를 지나며 이성계가 활을 쏘던 銘石院에서 지은 작품에서는 너무도 깨끗한 이 지역에 黑漢이 갑자기 쳐들어 와 애통하다고 한 바 있다.<sup>21)</sup> ‘흑한은 청나라로, 丁卯胡亂 때에 침공하여 황해도와 평안도를 함락 시킨 일을 말하는데 당대 왜양의 난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過咸興>라는 작품에서도 이성계의 옛 터전인 원산에 객관을 설치하여 비린내가 가득하다고 탄식한 바 있는데,<sup>22)</sup> 동일한 맥락에서의 언급이다.

정운영은 이에서 한걸음 나아가 비린내 나는 현실을 이성계의 소환을 통해 타개하고자 하는 열망도 담아냈다. <過咸關嶺>에서는 이곳이 이성계가 언나라 나하추[納哈出]<sup>23)</sup>를 격파한 곳이라 했고<sup>24)</sup> <過萬歲橋二首>에서는 이성계의 사

20) 권2 <渡龍興江【江在永興府北數弓許】>

21) 권2 <過元山浦【浦上路傍，有一巖。刻曰，銘石院。舊有太祖射臺。今院廢不存，但築墻以遮之，蓋爲外人往來故也。又立二木於其傍，白而書之曰，射臺重地，勿許雜人往來。】> “銘石巖邊院不開，多傳太祖射時臺。痛殺一區乾淨地，恣令黑漢突如來。【漢一作齒】”

22) 권2 <過咸興府【府南有豐沛館，太祖舊基也。德源之元山，外國開港設館。】> “聖祖潛龍地，孤臣匹馬行。館開漢沛邑，靱擊齊瀋城。近海山容嫩，極天野色平。富強佳麗域，豈意染羶腥。”

23) 納哈出(?~1388) : 元末 明初의 武將이다. 공민왕 11년(1362)에 수만 대군을 이끌고 北靑 洪原 등지에 침입하였으나 함흥 전투에서 이성계에게 대패했다. 이성계가 나하추를 격파한 것처럼 당대 왜양의 세력을 격파하고자 하는 열망은 <早登咸關嶺>(권2) “參天嶺畔四經過，秋去春來客恨多。曉旭通心移水國，浮雲回首杳京華。羊腸百折愁危磴，馬足千艱怯凍沙。靱韃腥塵乾淨地，崇碑偉績世無加。【嶺畔有太祖紀績碑，太祖戰納哈出於靱韃洞，破之。】”에도 담겨 있다.

24) 권2 <過咸關嶺【嶺在咸興北六十里，嶺北中聚，有太祖紀績碑。麗末太祖破元納哈出於此。】> “桓桓太祖業，赫赫咸關碑。立馬長松下，孤臣拜讀辭。”

적이 깃든 ‘萬歲橋’와 ‘樂民樓’를 통해 현실을 반추하고 태평성대를 염원한 바 있다.<sup>25)</sup> 단순히 이성계의 사적에서 과거에 대한 기억만을 읊조린 것이 아니라, 당대 현실과의 교섭을 통해 혼란한 당대 상황이 잠식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이성계를 소환한 것이다.<sup>26)</sup>

정운영은 왜양 세력의 침입으로 선악이 섞여 버렸고 짐승의 발자취로 비린내만이 진동한다고 현실을 인지했다. 자신은 죄가 없기에 아홉 번 죽어도 신념을 꺾을 수 없다는 언급 등을 통해 불굴의 의지와 애국의 심사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고사의 활용 역시 자신의 신념에 대한 논리적 배경으로 작용하여, 척화에 대한 신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또한 임진왜란의 기억과 이성계의 사적을 지속적으로 소환하면서 당대 현실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했는데, 이 역시 척화에 대한 불굴의 신념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 3.2. 인문지리에 대한 관심

유배길에 오른 이들의 대체적인 작품 경향은 유배길의 심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정운영의 경우에는 왜양 척화와 척사의 신념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기에, 이를 기반으로 애민에서 출발한 인문지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고 그러한 정신이 유배시기의 작품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우선 유배객의 처지에 있었지만, 마치 유람을 떠난 것처럼 유람객의 지역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秋史額楣太古山    추사의 편역이 걸린 태고의 산  
春坡面壁天花關    춘파 승의 면벽에 하늘 꽃 피었던 곳.

25) 권2 <過萬歲橋二首> “恰滿半千步，頗過三百間。嘉名錫萬歲，壽等盤龍山。” “萬歲橋西畔，有樓曰樂民。民生無樂日，寄語樓上人。”

26) 이외에도 이성계를 소환하여 자신의 심사를 드러낸 작품으로는 권2 <發永興府> “聖歷山前宿，王生島外行。逐臣培養荷，此日趨前程。【聖歷山，永興主山也，太祖所經歷處故云。府東二十里，有王生島。島外有瑯源殿，太祖發祥地也。】”；<咸興道中> “盤龍岡下府，馳馬臺前碑。聖祖桓桓業，當年此肇基。【府之主山曰盤龍。上有太祖馳馬處，後作臺立碑。】”；<謁本宮，登豐沛樓，次李尙書【集斗】板上韻> “王迹其肇基，本宮此地留。瓠綿宜百世，松老可千秋。漠漠雲田野，巍巍豐沛樓。詞臣感恩霽，北去復南遊。【樓柱大書周原瓠瓜漢社粉榆，宮庭有盤松二株。】” 등이 있다.

客來坐石鍾聲晚      길손 와 돌에 앉으니 저물녘 경쇠 소리  
流水白雲淸且閒      흐르는 물 흰 구름은 맑고도 한가로워라.<sup>27)</sup>

1882년 봄, 利原 서쪽 30리 大德山에 있는 定光寺를 유람하며 지은 것이다. 秋史 金正禧의 편액이 걸려 있고 春坡 주지승이 面壁하던 곳이라고 하면서, 저물녘 경쇠 소리와 흐르는 물, 흰 구름에 마음이 절로 맑고도 한가로워진다는 내용이요. 문면 어디에도 유배객의 처지는 노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유람객의 한가로운 정취만이 물씬 풍긴다. 정윤영은 이 작품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自註를 붙였다.

정광사는 利原 서쪽 30리 大德山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에 있다. 정광사는 新羅 때 창건되었고 丙子年(1636) 僧 元學이 증건했으며, 庚子年(1660)에 僧 性淨이 정광사의 주지가 되어 탑을 만들어 如來의 치아와 舍利를 봉안했다. 정광사의 옛 이름은 雲興寺였는데, 성정 스님 때에 이르러서 지금의 이름인 정광사로 고쳤다. 정광사의 편액 중에 ‘太古山房’과 ‘天花室’은 모두 秋史 金正禧의 필체이고 주지승은 春坡인데, 이곳 북쪽에서는 명성이 자자하다.<sup>28)</sup>

운흥사로 신라 때 창건되었고 중건을 걸쳐 정광사로 명칭이 바뀐 연혁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으며, ‘太古山房’과 ‘天花室’의 편액은 김정희의 필체로 소개했다. 각 지역 유물의 연혁에 대한 관심은 유배객의 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유람객으로 지역을 탐방하면서 남길 법한 기록이다. 이러한 관심은 비록 유배객이 되었지만 자신의 신념에 대한 변함없는 긍정이 동반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외에도 자신이 유람했던 곳의 풍경을 세세하게 묘사한 바 있다. 利原 동쪽 10여 리에 있는 雙石臺에서 노닐며, 그 곳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했으며,<sup>29)</sup> 이

27) 권2 <遊定光寺>

28) 권2 <遊定光寺> “寺在利原治西三十里大德山窮源處. 寺之創在新羅, 丙子僧元學重新之, 庚子僧性淨, 奉定光, 如來齒與舍利, 造塔以安之. 寺舊名雲興, 至是改名. 寺之額, 如太古山房天花室, 皆秋史筆, 而主僧卽春坡, 蓋有名于北也.”

29) 권2 <遊雙石臺> 【臺在利原治東十里許. 群山里一山臨海, 陡絕有二石, 高數十丈, 屹立如洪流之

원 남쪽 30여 리에 있는 遮湖에서 노닐며 관북에서 보기 힘들 정도의 승경이라 평가하며 그 곳의 全椒島와 麻姑巖 및 宿鷺臺를 소개한 바 있다.<sup>30)</sup> 이원 서쪽에 있는 多寶洞에서 주변의 암석을 실감나게 묘사했으며,<sup>31)</sup> 城鎮에서 鎮北樓, 神仙樓閣, 奉日軒, 望洋亭의 모습을 눈에 보일 듯 상세하게 그려낸 것도 주목되는 작품이다.<sup>32)</sup> 명천에 있는 七寶山을 유람하면서 지은 칠언 78구의 <七寶山長句>는 이러한 관심의 최고점에 이른 작품으로 판단된다. 마치 遊記에나 보일 듯한 방식을 총동원하여 칠보산에 대한 사적과 주변 풍광을 상세하게 묘사했다.<sup>33)</sup> 이는 척화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기반으로 한 조선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결과라 하겠다.

유배의 현장을 유람객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윤영은 북관의 史蹟에도 관심을 쏟고 이를 지속적으로 詩化했다.

銀河月은 定平의 退妓이다. 돈 일 만 냥을 정평에 기부하여 정평의 훼손된 다리를 그때그때 수리하게 했다. 지금까지도 고을 사람들은 그 돈의 이자로 다리를 수리하고 있다. 또한 고을 사람들은 다리 옆에 비석을 세웠는데, 篆書로 ‘銀河月碑’이라고 새겨져 있다. [銀河月, 定平退妓也, 以錢一萬散之境內. 凡有橋梁處俾隨毀隨補, 至

砥柱. 傍有二穴, 豁於石壁之間, 風濤驅入, 瀕洞澎湃, 如彭蠡之石. 鐘山謂之窟窟, 每春和風暖, 則海上常有蜃樓云.】“行到群山下, 登臨雙石間. 洞庭形局小, 砥柱弟兄難. 窟窟風濤噴, 蜃樓暖氣盤. 白鷗無世態, 春日坐磯安.”

30) 권2 <遊遮湖> 【湖在利原治南三十里. 其勝蓋亦關北之不易得也. 其地五峯作主四門, 開帳七星, 連脈環抱, 而爲青龍. 其杓星, 乃全椒島也. 湖之南, 島之中, 有麻姑巖宿鷺臺.】“長湖成局海門通, 認得名區在此中. 涯浚不分天上下, 村閭排在水西東. 石老千年棲白鳥, 山圍數點作青龍. 我行爲涉全椒島, 更借明朝一帆風.”

31) 권2 <遊多寶洞二首> 【洞在利原治西數十里許. 洞之西, 石壁皆削立, 數百丈參差蒼赤. 其偃蹇者, 如定釋頽翁, 其突露者, 如猛獸奇鬼. 其森列者, 如老將環甲冑. 轟轟如初發芙蓉, 落落如絕壁倒松, 亦奇觀也.】“奇巖朱碧與天齊, 花發水流路不迷. 更有懸庵山斷處, 孤僧偃罷掃花蹊.” “丹崖翠壁似屏環, 百丈奇巖萬仞山. 遇境一霄雲霧宿, 步隨流水下人間.”

32) 권2 <過城鎮> 【鎮之山, 發自摩天嶺, 一幹東走數十里, 忽旋抽一枝入海. 陡絕壁立, 中細下圓, 如熨斗形. 其北門曰鎮北樓. 內揭神仙樓閣, 其中細處高平, 爲一字文星, 如熨項, 築以重城, 建一樓曰奉日軒. 其下圓處, 壁立如熨腹, 有亭曰望洋. 其僉使府曰防守衙門. 其地一線成局, 三面環海, 蓋亦關北勝區也.】“直北山河第一關, 金湯天險此中間. 名區休說多生面, 遠客長吟可解顏. 防守衙門笳鼓啞, 神仙樓閣海濤環. 當年金虜經過地, 空使書生撫劍還.”

33) 권2 <七寶山長句>는 길이 실지 않는다.

今州人，息其錢，以修橋梁。又立碑橋傍，篆之曰銀河月碑]

石面芳名度幾秋	비석의 고운 이름 얼마나 세월 지났다
關山處處濟川流	관산의 곳곳에서 물길 건너게 했다네.
如何未得橋河漢	어찌하여 은하수 건너는 다리 못 만들어
空使仙郎夜夜愁	헛되어 선랑으로 하여금 밤마다 근심 겹게 하나. <sup>34)</sup>

定平의 퇴기였던 銀河月의 공적을 기록한 작품이다. 은하월은 자신의 돈 만금을 들여 무너진 다리를 조성하게 해 행인들의 편리함을 도왔기에, 고을 사람들이 그 공적을 새긴 비석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申佐模(1799~1877)도 『澹人集』 권5 <普渡橋>란 작품에서 “보도교는 정평에 있다. 이 고을의 퇴기인 은하월이 만금을 내어 열네 개의 다리를 만들어 행인들을 편하게 했기에, 다리 주변에 비석을 세운 것이다.[橋在定平縣，縣妓銀河月捐萬金，造橋十四，以便行旅，渡頭豎碑.]”라는 기록과 함께 칠언절구 한 수를 쓴 바 있다.<sup>35)</sup>

당시 북관에서 은혜를 베풀었던 은하월에 대한 언급은 애민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성리학적 충의로움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조선의 일면이며 이는 곧바로 척화 및 척사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성계의 사적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는데 원나라와 일본의 침략을 수차례 격파한 이성계의 기억을 통해 지금 당면한 왜양 역시 격파할 수 있다는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운영은 尹瓘에 대한 기억도 소환했다. 윤관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변방을 개척해 六鎭을 세운 공을 기록한 侍中臺의 비석과<sup>36)</sup> 그때 군사들을 위로했던 將士臺의 역사적 의의를 부연 설명했다.<sup>37)</sup> 그

34) 권2 <銀河月碑>

35) 申佐模, <普渡橋>(『澹人集』 권5) “中山【中山，定平古號】退妓字銀河，種得人間善果多。十四橋頭官大路，守金男子愧如何。”

36) 권2 <過侍中臺>【臺在北青終境峻嶺上，立碑紀尹侍中瓘拓邊功。】“嶺上有臺號侍中，崇碑爛紀拓邊功。下臨萬里風濤驅，動盪男兒海似胸。”

37) 권2 <登將士臺>【臺在端川北十里，道德山幹龍盡處。高麗侍中尹瓘之開拓六鎭也，犒士卒於此，後人築臺曰將士。又立碑以紀績，卽後孫尙書行直筆也。】“功盡三韓開六鎭，當年忠肅此行師。攀磴上來尋舊蹟，土人猶說峴山碑。”

리면서 호방한 남아의 흥금이 바다 같다고 평가했는데, 이 역시 현실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로 윤관에 관심을 쏟은 것이다.

이밖에도 북관의 풍속 및 그들의 생활상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북관의 풍속에는 단오에 선조의 묘소를 찾아 제사를 지낸다. 마치 남쪽 지방에서 寒食과 秋夕에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날 제사를 너무 후하게 지내면서 간략하게 예를 행하지를 못한다.[北俗以是日上墓祭之, 如南中之寒食秋夕, 乃失於厚, 而不能約禮也.]

殊方佳節正天中	타향에서 단오의 가절을 맞이하니
北俗較南頗異同	북쪽 풍속은 남쪽 지방과 다소 다르구나.
夏五留連關外客	여름 오월 북방에 머물고 있는 길손
秋千擾亂巷西童	골목 서편에서 요란하게 그네 타는 아이들.
菖蒲葉底溶溶水	창포 잎 아래 물은 질펀하게 흘러가고
楊柳枝頭澹澹風	버들나무 가지 끝엔 살랑대며 바람 불어오네.
此日祭墳遺失厚	이 날 성묘하는데 祭物이 너무 후하니
從來節略有潭翁	종래로 간략하게 제사 지내신 潭翁 있었지. <sup>38)</sup>

1882년 단오에 지은 작품이다. 그네뛰기와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단오의 풍속이 이곳 북관에서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날 풍성하게 제물을 갖추어 묘소를 참배하는 것만은 법도에 맞지 않는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구에서의 ‘潭翁’은 石潭 李珥를 말한다. 간략한 제사를 주장했던 이이에 관한 언급인데, 이는 성리학적 교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내재된 대목이다.<sup>39)</sup> 이

38) 권2 <端午>

39) 정운영은 이이와 관련해서 권1의 <謹次粟谷過箕子廟韻>과 권2의 <己卯之喜> 등의 작품을 지었다. 이들 작품에서 이이가 <箕子實記>를 지은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자로부터 시작된 조선의 역사를 긍정하면서 기자의 사적을 칭송했다. 예약과 문물을 갖춘 조선의 정통성에 대한 자부르, 정운영은 척화와 척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북관은 李恒福이 유배되었던 곳이다. 정운영은 유배시기에 이곳에서 <弔白沙李先生賦>(권1)와 <謁老德祠> <老德祠謁白沙李先生影幀> <老德祠次李尙書【文源】板上韻>(권2) 등의 작품을 지은 바 있다. 이들 작품에서 정운영은 이항복이 ‘衛正而斥邪’를 위해 아홉 번 죽어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지금의 혼란한 상황을 一掃해 주기를 희망했다. 이항복의 정신을

러한 인식도 당연히 척화로 연결된다.

다음은 구황작물인 ‘고구마’와 관련된 정윤영의 작품으로,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藷’와 ‘蔗’는 이름만 같을 뿐 실제로는 다른 것인데, 감저는 ‘저’이지 ‘자’가 아니다. 山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밥 대신 먹으면서, 이것으로 면도 만들고 밥도 짓고 술도 빚고 떡을 만들기도 하면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수십 년 이래로 이것을 심는 것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깊은 산 속에 심은 것은 수확량이 훨씬 많으며 맛보면 훨씬 달콤합니다.”라고 말했다. 北靑 사람이 말하길 “근래에 산에 들어가 집을 짓고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 주변의 움푹 패인 곳을 파서 이것을 얻었는데, 마치 쌀가루처럼 생긴 것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가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은 “수십 년 전에 이곳에 ‘저’를 심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구덩이 하나를 파서 그곳에 숨겨 두고 산을 내려왔는데, 결국 그 산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세월이 오래되어 흙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이 얻었던 것이 바로 이전에 땅이 묻어 두었던 그 ‘저’입니다.”라고 했다. 참으로 기이하구나, 세상의 온갖 곡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먹을 수 있는 초목의 뿌리와 열매 중에, 땅에 구덩이를 파 묻어두었는데 세월이 지나도 썩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생각건대, 하늘이 이 식물을 내려 준 것은 백성들이 이것으로 식량을 대체하여, 곡식이 없는 궁벽진 산 속이나 들판에서 유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인가 보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일부러 이것을 기록한다.[藷與蔗名同而實異, 此卽藷而非蔗也. 山中人食之代糧, 作麵作飯作酒作餅, 無所不可. 北人之言曰, 自十數年來, 種此愈多, 其種之深山者, 取之愈蕃, 啖之愈甘. 北靑人言, 近有人入山築室者, 於地凹處掘之, 得堆積如米屑者, 取食以生. 土人云, 數十年前, 此處有種藷以生者, 埋藏一大坎, 下山遂不果來, 以爲年久化土, 其築室者之所得, 卽前者埋坎之藷也. 異哉, 世間無論百穀, 與草木根實之可食者, 豈有理之土坎積年不腐敗者乎. 意者, 天生此藷, 將使斯民得以資食, 圖生於窮山無穀之地平野離亂之中也歟. 余故錄此以示于世.]

木實草根多救荒	나무 열매 풀뿌리 구황작물 많지만
孰如甘藷便休糧	곡식 없을 때 고구마만한 것이 있으랴.
入土十年無損壞	땅에 묻은 지 십 년인데도 썩지 않았고
屑如雪白久尤良	눈 같은 흰 가루는 오래되어도 더욱 좋아라. <sup>40)</sup>

‘甘藷’와 ‘甘蔗’는 비슷한 발음으로 인해,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실제로 다른 작물이라고 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밥과 술, 떡을 만들 수 있는 고구마의 구황작물로서의 가치를 열거하면서 고구마가 이 지역에서 산출되게 된 연유에 대해 적지 않은 지면을 활용하여 설명했다. 이에 하늘이 내려준 구황작물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기록을 남긴다고 언급했다. 실제 정윤영이 안성의 후산에서 살던 1876~1877년 2년간 대가뭍으로 극심한 흉년을 경험하면서 구황작물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구황작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sup>41)</sup> 이는 단순히 구황작물에 대한 관심을 넘어 爲民意識의 측면에서 다가선 것이라 한 층 더 의미 있는 언급이라 하겠다. 자신이 주장했던 척화 역시 이러한 애민정신과도 일정 정도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다.

이월 북쪽 10여 리에 있는 鴻津을 지나며 지은 <過鴻津>이란 작품에도 그러한 애민정신이 투영되어 있다. ‘北魚’를 잡으며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 이곳 민초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또한 ‘북어’를 북쪽 사람들은 ‘明太’라고 한다면서, 옛날 明川 고을의 太氏 姓을 갖은 사람이 처음으로 이 고기를 잡았기에 ‘명태’라고 한다는 기록을 덧붙였다.<sup>42)</sup> 고달픈 민초들의 삶과 ‘명태’의 유래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실의 삶에 인문지리적인 정보를 추가했다.

정윤영은 유배객이었지만 그의 작품에는 고단한 유배의 삶보다는 민초들의 삶과 북관의 인문지리적인 측면의 언급이 적지 않다. 유배지 주변을 유람하면

40) 권2 <甘藷>

41) 오영삼·김자운 공저, 앞의 책, 60쪽 참조.

42) 권2 <過鴻津> 【津在利原北十許里。時雪收風急，海濤洶湧。遙望天邊，漁船簇簇，皆捕北魚者，凜乎其不可觀也。北魚，北人謂之明太。古有明川太姓人，始得此魚故云。】 “大雪埋溝壑，長風鼓海波。正知生利苦，泛泛漁舟多。”

서 많은 시작품을 남겼는데, 유배객의 처지는 전혀 노출하지 않고 오직 유람객의 입장에서 한 편의 遊記를 남긴 감이 강했다. 이성계나 윤관과 관련된 북관의 史蹟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았고 북관민의 삶에 대해 시선을 두었다. 유배객이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은 척화를 주장했던 자신의 신념에 대한 불굴의 자세가 기저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3.3. 산수 유람의 흥취와 문학적 승화

정윤영의 유배시기 시작품에는 문학적 성취를 이룬 작품도 산견된다. 우선 권1 앞부분에 실린 유배시기에 지은 賦 5편과 詞 3편에는 정윤영의 문학적 성취가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 또한 유배지인 이원에 도착한 후 주변을 유람하며 지은 작품에도 유람객의 흥취가 문학적으로 승화되어 있다.

學士臺는 利原邑 동쪽 30여 리에 있다. 암석이 층층이 쌓여 있으며, 평탄하고 넓기가 臺와 같다. 학사 權漣가 그 암벽에 처음으로 ‘學士臺’라고 새겼다. 학사대 동쪽으로 물길 따라 10여리 가면 卵島가 있다.[臺在利原邑東三十里, 巖石自相堆積, 平廣如臺, 權學士漣, 始鐫曰, 學士臺. 臺東水路十里有卵島.]

堆積層層石作臺	층층이 쌓여 암석이 대가 되었으니
形形奇絕絕塵埃	모습마다 기이하여 세속은 아니로세.
化翁剛巧藏無盡	조화옹은 비경 만들어 끝없이 숨겨 놓았는데
學士鐫名去不回	학사는 대 이름 새기고 떠나 돌아오지 않네.
蛟浪萬里兼天湧	만 리의 물결은 하늘까지 치솟고
卵島一拳特地崑	주먹 같은 난도는 땅에서 우뚝 솟아있네.
天以勝區此間置	하늘이 승경을 이 사이에 두었으니
祇應爲待后山來	아마도 后山子가 오길 기다린 듯. <sup>43)</sup>

이원의 동쪽에 있는 학사대를 방문하고 쓴 작품이다. 權漣가 학사대라 명명한 것부터 언급하면서 주변의 알섬[卵島]까지 소개했다. 기이한 학사대는 조화

43) 권2 <遊學士臺>

옹이 감추어둔 祕境이라고 하면서, 하늘이 감추어 둔 것은 후산자 자신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라고 하면서 유람의 흥취를 만끽 했고 동시에 일정 부분 문학적 성취도 이루어냈다.

倚杖摩雲嶺	지팡이 짚고 마운령에 오르니
白雲生足下	흰 구름이 발아래에서 일어나누나.
摩之猶屬歇	‘摩’라고 한 것은 의미가 없는 듯
更號履雲可	‘구름을 밟는다[履雲]’라고 불러도 좋을 듯. <sup>44)</sup>

摩雲嶺에 올라 흥취를 읊은 작품이다. 마운령에 오르니 발아래에서 흰 구름이 생겨나니, ‘구름을 닿을 듯한 摩雲嶺’이 아니라 ‘구름을 밟고 올라서는 履雲嶺’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하면서 흥취를 더욱 고취시켰다. 이 외에도 安邊의 花山亭을 지나며 지은 작품에서도 蓬萊 楊士彦이 손수 심은 소나무를 보고, 자신이 오기를 기다려 심어 놓은 듯하다고 유람의 흥취를 맘껏 발산한 바 있다.<sup>45)</sup> 또한 이원의 서쪽에 있는 多寶洞을 유람하고 지은 작품에서도 이러한 절경 속에서 하룻밤 자고 흐르는 물 따라 인간세상으로 내려온다고 하면서, 선경에서의 정취를 만끽했다.<sup>46)</sup> 절경을 유람하는 작가의 흥취가 오롯이 담겨 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유배 또한 天命이라는 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이러한 천명의식은 기실 자신이 주장했던 척화 및 척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雨暗雲俱黑	비에 어둑하고 구름도 모두 흑빛이라
崇朝未見暉	아침 와도 햇살이 보이지 않노라.
那將風一陣	어찌하면 한 줄기 바람을 몰아와서
雲雨捲同歸	구름과 비를 모두 쓸어버릴 수 있을까. <sup>47)</sup>

44) 권2 <登摩雲嶺>

45) 권2 <過安邊花山亭. 二首> “花山亭畔萬株松, 大者參天閱幾冬. 記取蓬萊曾手植, 短碑剝落綠苔封. 【道傍有碑, 篆曰楊蓬萊手植松.】 “好向登州別處栽, 千章落落拂雲開. 手植道人何處去, 多傳此待后山來. 【登州, 安邊古號.】”

46) 권2 <遊多寶洞二首> 각주 31 참조

유배 가는 길에 비 때문에 德源邑에 머물며 지은 작품이다. 전체 작품은 비로 인해 어둑해진 세상에 대한 언급이고 이 비가 빨리 걷혀 자신의 길을 가고 싶다는 말이다. 그러나 유배객의 처지에서 보면, 비 때문에 유배길이 늦어진다고 해서 고뇌할 일은 아니다. 이 작품은 비 때문에 어둑해진 세상에 당대 사회의 혼란상을 견주었고 먹구름과 비를 쓸어버리고자 한 것은 척화와 척사의 다름 아니며, 한 줄기 바람은 자신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성리학적 세계관인 셈이다. 이 작품은 눈앞의 풍경을 자신의 우국충정의 의식 속으로 가져와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킨 결과물이다.

권2의 <海瘴>이란 작품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작품은 실제 눈앞에 펼쳐진 瘴氣로 출발했다. 그러나 장기로 인해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것은 혼란한 당대 상황을, 대문 걸고 한숨 쉬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작가의 탄식을, 바람 불어와 몽롱함 제거하기를 바란 것은 혼란한 상황을 타개하기 바라는 우국충정의 심정을 담은 것이다.<sup>48)</sup> <踰鐵嶺二首> 중 두 번째 작품에서도 도끼로 龍門山을 끊어 물길을 통하게 했던 禹 임금의 고사를 가져와 평지를 만들어 물을 잔잔히 흐르게 할까 고심했는데,<sup>49)</sup> 혼란한 당대 현실에 대한 타개책을 고민한 흔적이다. 또한 이원 남쪽 30여 리에 있는 全椒島에서 일출을 보며 지은 작품에서도 물안개 걷혀 도개비가 숨어드니 만국의 광명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sup>50)</sup> 이 역시 물안개처럼 드리워 있는 왜양의 세력을 몰아내고 다시 성리학적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의 다름 아니다. 이처럼 현실 인식과 그 해결책을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드러내기도 했지만, 경물을 대하는 순간 그러한 평소의 신념이 경물에 그대로 반영되어 중의적인 의미를 띤 작품을 양산하기도 했다.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의 심사를 문면 곳곳에 배치하여 작품의 편폭을 한 층 넓힌 것이다.

유배시기 정윤영의 문학적 성취 및 승화의 정점에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47) 권2 <滯雨德源邑>

48) 권2 <海瘴> “有氣漫漫遍地籠，若烟非霧失西東。縮首掩門長歎息，呼風那得掃冥濛。”

49) 권2 <踰鐵嶺二首> “纔過激湏又邛峽，劒水刀山萬疊回。安得鑿龍神禹斧，盡爲平地穩流來。”

50) 권2 <全椒島觀日出> “全椒花壓扶桑枝，孤島平臨浴日池。暘谷飛鳥揚彩際，高岡鳴鳳覽輝時。蒼茫曉色三分失，燦爛霞光百道奇。瘴霧初收魍魅伏，光明萬國未應遲。”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前宵夢入故山梅 어젯밤 꿈에서 고향의 매화 보았으니  
 春事也應雪屋催 눈 덮인 집에도 응당 봄 재촉하겠지.  
 千里關河消息斷 천 리 밖에서 집안 소식 끊어졌으니  
 玉條從此幾花開 옥 같은 가지에 몇 가지나 꽃 피웠을까.

萬木催殘獨立梅 모든 나무 시들하지만 매화만 우뚝 서 있고  
 自君去後歲寒催 그대 떠난 후로 날씨는 더욱 추워졌네요  
 爲待式過恩霈降 빨리 임금 은혜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니  
 留花須向早春開 꽃 봉우리 숨겨두었다 이른 봄에 피우겠어요.

인용한 첫 번째 작품은 권2에 실린 <問故山梅>이고 두 번째 작품은 바로 이어지는 <梅答>이다. 첫 번째 작품은 정운영이 고향의 매화에게 묻는 것이고 두 번째 작품은 고향의 매화가 정운영에게 대답하는 門答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배객의 처지이기에 고향 소식에 대한 간절함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매화에게 봄을 맞아 몇 가지나 피웠는가 묻는 것은 고향의 가족에 대한 구구절절한 그리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두 번째 작품의 매화의 대답 또한 절창이다. 그대 떠난 후 萬木은 시들었지만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면서 유배에게 풀려나는 임금의 은혜만을 기다려, 그대 돌아올 때에 맞추어 몇 송이 피우겠다는 것이다. 매화를 의인화하여 문답을 주고받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해배되어 돌아가고픈 열망을 효과적으로 담아냈다.

기실 정운영의 이 작품은 唐나라 王維의 <雜詩> 3수 중 두 번째 작품을 모티브로 지어진 것이다. 왕유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君自故鄉來 그대 내 고향에서 왔노니  
 應知故鄉事 응당 내 고향 일 알리오  
 來日綺窗前 떠나오던 날 비단 창 앞에  
 寒梅着花未 찬 매화는 피었딘가요

타향에 있으면서 고향에서 온 사람을 보고 고향 소식을 물었다. 그런데 정작 물어야 하는 가족의 안부는 뒤로 한 채, ‘떠나오던 날 우리 집 창 앞의 매화는 피었던가요’라고 묻고 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의 안부에 대한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 담아낼 수가 없었기에 매화만을 물은 것으로,言외의 함축을 통해 자신의 심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왕유의 이 작품을 기반으로 정윤영 역시 위의 두 작품을 지었으며, 매화에게 묻는 방식을 왕유의 작품에서 차용했고 이에 덧붙여 매화가 대답하는 작품까지 지은 것에서 정윤영의 문학적 성취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sup>51)</sup>

정윤영은 유배객의 처지이면서도 일반 유람객과 같은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 보고 절경을 대하는 흥취를 맘껏 발산하여 시작품 속에 담아냈고 당대 현실과 자신의 심사를 눈앞의 풍경과 일치시켜 우회적인 방식으로 천명의식과 우국충정의 심사를 드러냈으며, 매화를 통해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아내는 듯 이 시기 작품에서 일정 정도 문학적 성취 및 승화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자세는 앞서 살핀 척화 및 척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념이 기저에 깔려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 4. 나가는 말

이상으로 정윤영의 유배시기 시작품을 열거하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에 접근해 보았다. 정윤영은 2차례 올린 경기도의 신사척화소장의 배후 인물로 지목되어 함경도 이원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1881년 9월 초에 떠나 1883년 봄에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유배 전 시기 지은 작품에는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과 척화 및 척사에 대한 자신의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다. 비록 유배객의 처지였지만, 자신의 신념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정통 성리학자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현실의 난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성계의 사적과 임진왜란의

51) 이외에도 권1 詞의 <利城雪夜共朱乃雲【日龍】，謹次朱子梅詞。二闕.>과 <謹次朱子西江月詞。二闕.>에서도 매화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낸 바 있다.

기억을 소환하여 왜양의 세력이 일소되기를 갈구했는데, 이 역시 평소 신념이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다.

정윤영의 유배시기 작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북관의 인문지리에 적지 않은 관심을 쏟았다는 것이다. 유배객의 처지이면서도 이원 주변의 지속적인 탐색이 이루어졌고 그곳의 사적을 소개했으며, 풍습 및 백성의 삶도 詩化했다. 유배객 이면서도 북관의 인문지리에 대한 관심은 애민애족의 일환이면서도 평소 자신의 신념에 대한 정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이원 주변의 절승처를 유람하면서 마치 유람객의 모습을 드러낸 작품을 살펴보았다. 절경에서 흥취도 맘껏 구사했고 풍경을 직면하면서 그 속에 혼란한 당대 현실과 난국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갈망을 우회적인 수법으로 담아냈다. 특히 당나라 왕유 작품을 모티브로 한 <問故山梅>와 <梅峯>이란 작품은 정윤영의 문학적 재능을 가늠하게 해 준다. 이러한 문학적 성취와 승화 역시 그 기저에 자신의 신념에 대한 강한 긍정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대의 현실인식과 불굴의 신념 등은 당시 척화와 척사를 주장했던 이들의 시문에 보이는 대동소이한 교집합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윤영의 유배시기 시 작품 만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신념에 대한 변함없는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작품을 소개하는데 주력했다. 당대 신사척사운동으로 유배를 가게 된 다른 이들의 작품과도 비교 연구를 통해 정윤영만의 특징적 일면을 파악해야 하고 정윤영 전시기의 삶이나 신념에 대해서도 『후산집』의 전체 시작품을 통해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후고를 기약하겠다.

## 참고문헌

### 1. 자료

鄭胤永, 『后山集』, 화성시 향토박물관 소장.

申佐模, 『澹人集』, 한국문집총간 309집.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2. 논저

권오영,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김시태, 「黃遵憲 朝鮮策略이 韓末政局에 끼친 영향」, 『사총』 8권,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63.

문소정, 「衛正斥邪運動에 관한 知識社會學的 研究(下)」, 『한국학보』 10권 4호, 일지사(한국학보), 1984.

송병기, 「辛巳斥邪運動 연구」, 『사학연구』 37, 한국사학회, 1983.

오영섭, 『화서학파의 사상과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1999.

오영섭·김자운 공저, 『구국救國의 마지막 제언-후산 정윤영의 학문과 실천』, 화성시·화성문화원, 2010.

| Abstract |

**A study on Conviction and Recognition of Reality  
of *Husan Chung Yoon-young*  
- Focused on the Delivery Period -**

Park, Chong-hoon

In 1881, the spirits movement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At that time, *Chung Yoon-young*(鄭胤永) was identified as a behind-the-scenes figure who had two wings. In September 1881, he was exiled to the Hamgyeongdo Iwon(利原) and returned to his hometown in the spring of 1883.

Through the works reflecting the perception of the contemporary reality and the unbelievable beliefs, it revealed the consciousness of the consciousness of exile, the legitimacy of speckle and the jumper.

He paid much attention to the humanities geography of the *Buggwan*(北關). It has made poetry of history, customs of the time and life of people. Finally, he traveled all over scenic spots around the exile and left a few works. He portrayed the scenes he encountered when he was exposed to superb scenery, but also embraced the reality of reality and the desire for a breakthrough in it. The literary accomplishment and sublimation of the exporters is a different approach than the ordinary explosive. It was possible that this description was possible because of his unshakable conviction.

**Key words** : Sinsa Cheogsa(辛巳斥邪), Cheogsa Maninso(斥和萬人疏), Husan(后山), Chung Yoon-young(鄭胤永), Husanjib(后山集), Exile.